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서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발행·편집인: 박동열
발행처: 경남중고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 (051)245-7551 ~ 3, FAX: 245-7550
홈페이지: www.kyungnam.or.kr
인쇄처: (주)중앙인쇄 (051)636-9477
재경동창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복빌딩 504호
Tel: (02)783-0071 ~ 2, FAX: (02)783-0073

'모교60년사' 편찬의 해로

본부동창회, 2003년 조직활성화 방향 제시 각종 행사 세대별 격차 해소에 주력

본부동창회는 2003년 조직활성화 방향을 '변화 속의 화합과 참여 속의 결집'을 바탕으로 삼아 집행부가 역량을 십이분 발휘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를 '모교60년사' 집대성의 해로 설정. 전방위 추진에 진력할 계획이며 기존 행사들도 사회 변화에 걸맞게 전향적으로 검토, 세대별 격차를 해소하는 이벤트로 개발할 방침이다.

박동열 본부회장(8회·해운대성심병원장)은 지난 1월6일 동창회 사무국에서 이 같이 올해 조직 운영계획안을 밝히고 전력투구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따라 본부동창회는 용마가족의 적극적인 협력이 요구되는 '모교60년사' 편찬사업을 오는 연말에 성취한다는 것이다. 사업추진은 △1/4분기 중에 갖가지 자료를

수집하고(자문회의 포함) △2/4~3/4분기 중에 자료정리·집필(자문회의 포함) △4/4분기 중에 편집·인쇄(자문회의 포함)를 마무리한다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놓고 있다. 이 사업은 이미 각 동기회를 통해 많은 동문들로부터 자료수집에 대한 협력을 받고 있다.

본부는 디지털사회에 걸맞게 모든 기존 행사들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 세대별 갭을 좁히는 유쾌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젊은 동기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 같은 추진은 최근 젊은 세대의 동기회 동문들이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그리고 동기기·지역회·직능회의 각종 행사에 본부 임원들이 적극 참석해 격려하고, 해외 지역회와의 긴밀한 유대감을 형

성. '가까이 있는 용마가족'으로 인식되게끔 노력하기로 했다. 기별대회항전으로 열리는 야구·

낚시·테니스·골프·등산·바둑대회 등에 가족들이 적극 참여토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월12일 올해 첫 행사로 열린 본부 용마바둑회 주관 제2회 개인대항바둑대회를 기폭제로 본부 정기총회(3월)·테니스대회·등산대회·낚시대회 및 홈커밍데이

행사(4~5월)·바둑대회 및 골프대회(6~9월)·기별야구대회(10월)·용마의 밤(12월) 행사 등도 화합과 결속 속에 활성화되게끔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모교 지원 사업은 학업증진과 교육환경 개선 부문 등에 성의껏 대처할 방침이다.



지난 1월8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재경동창회 2003년 신년회.

“새로운 도약 위해 역량 결집을”

재경동창회 2003년 신년회가 지난 1월8일 오후 6시30분 서울 소

재경동창회 신년회

유홍종(11회) 등 16명
'지랑스런 용마상' 수상

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신준호 회장(14회·롯데우유 회장)을 비롯한 500여 동문(제1회~55회)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양조 사무국장(19회)의 사회에 따라 국민의례·교가제창(김경회 고문 지휘)·내빈소개·이상택 직전회장 감사패 및 행운의 열쇠 수여·'지랑스런 용마상' 시상 등 순으로 진행됐다.

신준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우리는 신년회에 즈음해 사회의 변화 리듬에 부응하는 지혜를 발휘해 자긍심 넘치는 모교와 동창회를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올려 놓자”고 말했다.

신 회장은 인사말에 앞서 유공동문 표창을 통해 유홍종(11회·

BNG스틸 회장·부산AG 대한민국 선수단장)·권영길(민노당 대표·대선 후보)·김병호(국회의원)·박희주(전 페루 대사·이상 15회)·박문성(SKM 대표이사)·어윤대(고려대 교수·공적자금관리 위원·이상 17회)·강태순(두산관리본부 대표이사)·김갑렬(LG건설 대표이사)·박봉흠(기획예산처 차관)·성상철(분당서울대병원장)·전재호(파이낸셜 뉴스 사장·이상 21회)·강성숙(외환은행 지점장·대통령표창 수상)·문원경(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이상 22회)·정갑윤(23회·국회의원)·서병수(25회·국회의원)·전 풍(27회·오리콤 대표이사)에게 각각 '지랑스런 용마상'을 수여했다.

이날 정동식 명예회장(1회)을 비롯해 문택상 정상천(이상 4회) 최석원 나오연(이상 6회) 박영식 동문(7회) 등 정·관계 등에서 활약하고 있는 수많은 동문들이 소개돼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2면에 넘김>

이상삼 (13회·최강부) 棋王 등극

일반부 신성수(31회·갑조)·김원형(11회·을조)·이현복(24회·병조) 우승

본부동창회 주관
제2회 개인바둑대회

아마 5단 이상삼 동문(제13회·최강부)이 지난 1월12일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빌딩 6층 중앙바둑센터에서 열린 본부동창회 주최 제2회 용마바둑회장배 바둑대회(개인전)에서 기왕(棋王)에 등극했다. 일반부에서는 신성수(31회·갑조)·김원형(11회·을조)·이현복 동문(24회·병조)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본부동창회가 새해 벽두 첫 행사로 펼친 이번 대회는 제9·10·11·13회 등 역전의 노장을 비롯, 80여 명이 출전. 반상을 뜨겁게

달구었다(사진). 한편 이날 오전 10시 열린 개막식은 한병조 회장(13회) 인사·고(故)강철민 고문(11회·프로 8단) 추모 묵념·교



가 제창 등으로 진행됐다.
▲입상자 ▷최강부 : 우승 이상삼·준우승 강성훈(29회)·3위 이관선(28회)
▷일반부 갑조 : 우승 신성수·준우승 민길식(32회)·3위 정민화(27회)
* 을조 : 우승 김원형·준우승 이상훈(11회)·3위 임응수(13회)
* 병조 : 우승 이현복·준우승 전병의(10회)·3위 최득호(11회).

www.fnnews.com

매력적인 경제신문, 읽기쉬운 경제신문
파이낸셜 뉴스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만 취했습니다.
올컬러, 인체공학 관형에 순도 100% 정보만 골라 드리는
신감과 종합일간경제지 파이낸셜뉴스가 있어
여러분의 아침 지식정보 식탁은 늘 싱클합니다.

代表理事 / 發行人 全在浩(21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5번지 파이낸셜뉴스빌딩
Tel: 02-2003-7100,1 / Fax: 02-2003-7110

매력적인 경제신문, 읽기쉬운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신문주는 신뢰형, 신감각, 신개념의 3선(線) 모두를 추구하며 종합일간경제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변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과 진전이라는 가치여려 향상 창간한다는 지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세호 및 디자인의 전반적인 혁신과 함께 시대 흐름에 맞는 뉴스보도, 정보의 심층화와 다양성을 추구하며 국내 정상의 경제신문으로 독자 여러분께 생김 다가옵니다.
●구독신청:(02)2002-0111 ●광고문의:(代)(02)2003-7444

국내외 용마가족 여러분. 희망의 새해 2003년은 변화와 균형과 도전을 화두로 삼고 출발했습니다. 이 같은 시대적 요청은 결과적으로 우리를 한 단계 발전하게 하는 것으로, 역경을 용기로 인내할 때 비로소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속에서 역량을 결집하는 지혜를 쌓아야 합니다.

숨막힐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빠른 오늘날 디지털사회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날로그적 사고와 행동으로는 이를 극복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는 세대별·계층별·지역별 등 갈등과 편차를 풀고 없애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창회는 술한 시련의 세월, 영광의 세월, 좌절의 세월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처럼 굳건한 반석 위에 우뚝 서 있습니다. 자긍심을 드높이고 영광을 위한 햇볕을 더욱 밝게 당당하게 전진합니다.

올해 본부동창회는 먼저 어떤 일이 있어도 '모교 60년사'를 편찬해 우리의 역사를 정리하겠습니다.

시련과 좌절, 도약과 영광이 씨줄과 날줄로 교직된 우리의 역사가 햇빛을 볼

신년사

박동열

제8회·본부동창회 회장
해운대성심병원 원장



변화의 시대에 과감히 도전을

때 우리의 용기와 자존과 도전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용마가족 여러분들이 자료수집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성원해주어야만 성취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협력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용마가족은 현실을 지혜롭게 극복하여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자신을 엄격하게 담금질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약진하는 동창회'를 위해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가 되게끔 뭉쳐야 합니다. 나만이 옳다는

생각보다 우리의 순수한 우정과 옛 추억, 미래의 희망을 추구하며 현실을 빠르게 인식하는 자세를 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창사회와 동문 간 발전과 유대가 촉진되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인정하며 격려하는 풍토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는 응집력과 화합을 위한 활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창회도 아날로그세대와 디지털세대 간의 갭을 좁히는 데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수직적 관계의 사고를 수평적 관계의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젊은 세대의 동기회

동문들이 많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동창회에 오랜 세월 참여해 온 저로서는, 아직도 동창회는 과거·현재·미래의 연결이라는 동창회의 깊은 인연의 고리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삶의 끝자리에서도 '동문=용마'라는 그 아름답고 명예스러운 이름에 감사할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용마가족 여러분. 우정을 돈독히 하는 데는 자기를 자제하고 남을 이해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는 선후배 동문의 연결고리로 깊은 사랑과 우정을 솟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서로 돕고 기여해야 합니다.

이 같은 일들은, 우리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뜨거운 성원이 '크나큰 힘'을 창출하여 변화와 균형과 도전의 시대를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경남중고동창회 깃발 아래 결집시킵시다.

국내외 용마가족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고 각자의 일들이 실패라 풀려 나가듯이 항상 순조로운 가운데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1면 재경 신년회>에서 받은 이어 동문들은 정동식 명예회장의 제의에 따라 축배를 들었고, 식사를 하면서 선·후배 간 격려와 덕담을 나누고 동기회별로 기념사진을 찍는 등 우정을 쌓았다.

신임회장 정종만 선임 제10회 집행부 새로 구성



제10회동기회는 지난 12월5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중앙동 신북경반점에서 2002년 정기총회를 개최, 신임회장에 정종만 동문(사진)을 선출했다.

전영대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설했다. 이어 송년잔치를 배풀었다.

손부흥 회장 1년간 유임 일오골프회 송년대회

일오골프회는 지난 12월12일 통도CC에서 동기회장배 쟁탈 골프대회를 개최한 후 정기총회를 열어 손부흥 회장(손부흥정형외과 의원장)과 김창구 총무를 유임시켰다(임기 1년).

이날 라운딩에서 우승 손부흥·



메달리스트 한해수·준우승 신흥규·근접상 최 옥·장타상 강재모·행운상 김창구·우수상 강민조 김승일 김항영 신욱규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김 조(16회) 회장 유임 등대회 총회 겸 신년회



등대회(부산지역 해운·항만·수산업 등 관련 업계 동문 모임)는 지난 1월9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호텔 2층 회관에서 제29차 정기총회 겸 신년회를 개최했다.

김 조 회장(16회·천우교역 대표 이사·사진)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 개선을 통해 김 회장을 유임시켰다.

박동열 본부회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 축사를 하고 동문들을 격려했다.

김회장은 안창홍 동문(29회·고려종합국제운송 소장)에게 자랑스런 등대인상을, 노경보 동문(33회·원물류 근무)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새로운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 △ 회장 : 김 조
- △ 수석부회장 : 남기석(20회·한국해운 상무이사)
- △ 부회장 : 임경범(21회·세계통상 대표이사)·주우실(22회·대한통운 사장)·이덕남(23회·동부건설 부산지점장)·백산흠(24회·소양해운 부산사무소장)·황근태(25회·KCTC 부산지점장).

지난 1월9일 코모도호텔 회관에서 열린 등대회 신년회의 축하케이크 절단식.

신년회 1월23일 외교센터서 재경경팔회

제8회재경동기회(재경경팔회)는 오후 1월23일 오후 6시 서울 외교센터 12층 리더스클럽(양재역 8번 출구에서 예술의 전당 방향 130m)에서 정기총회를 겸한 신년회를 부부동반으로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해 연말 열렸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뤄진 것.

김중광 회장 유임 결의 일오산우회 금정산 올라

일오산우회 2002년회산행대회가 지난 12월15일 동문·가족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금정산에서 열렸

고, 산행 후 임원개선에서 김중광 회장과 최원수 총무를 재선임했다.

유경수 산행대장의 리더로 일행은 범어사 절골 아래 밤골~무명암~능선~두고개~북문(점심식사)~목장쪽 코스에서 겨울땀을 한껏 흘렸다.

이날 이정부 동문이 오랜만에 합류해 반가움이 더했다. 일행은 저녁식사 후 김창구 박찬호 안충웅 유경수 동문 등이 각각 쾌척한 금일봉으로 송년잔치를 신나게 펼쳤다.

태백산 설경 관광 산행

경열회 사니조아 도전 체비...각 친목회 활동 개시

경열회(제10회재경동기회)는 계미년 새해를 맞아 각 친목회를 중심으로 화합과 결속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안산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1월14일 정오 안산 중앙역 다릿목 추어탕에서, 동수회(회장 박해철)는 11일 오후 1시 명동 자스민기원에서, 강북회(회장 손 정)는 7

일 정오 늘 모이는 중앙극장 앞 평래옥에서 각각 신년회를 열었다.

한편 여의도회(회장 김상태)는 21일 정오 광산각에서, 사니조아(회장 이계창)는 25일 태백산 설경관광 겸 등산을, 강남회(회장 성 은)는 28일 정오 서초갈비촌에서 각각 신년회를 연다.

제미년 새해를 맞아 용마가족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 본부동창회 임직원 일동

고문

- 權五賢(1회) 경성대학교 이사장
- 金根俊(1회) 경남학원 원장
- 鄭銅植(1회) 재경동창회 명예회장
- 金泳三(3회) 전 대통령
- 柳永烈(3회) (주)왕도 대표
- 宋斗灝(3회) 전 국회의원
- 鄭相千(4회) 자민련 부총재
- 禹明珠(5회) 부산예술문화대학장
- 朱範國(5회) 전 경기은행장
- 鄭昭永(6회) 유니온치과병원장
- 趙大濟(7회) 협성개발(주) 대표

회장

朴同烈(8회) 해운대성심병원장

부회장

- 丁幸權(9회) 부산가스개발(주) 대표
- 韓東大(9회) 한동대신경정신과의원장
- 姜鎮平(10회) 부광산업(주) 대표
- 吳剛旭(10회) 남산곡산(주) 대표
- 安康泰(11회) 대신조선(주) 대표
- 吳完洙(11회) (주)대한제강 대표
- 姜洙憲(12회) 대동벽지(주) 대표
- 王漢均(12회) 대양지류(주) 대표
- 張 清(13회)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曹東久(13회) (주)동우영상 대표
- 韓炳祚(13회) 부일법무사 사무소 대표
- 朴炳善(14회) (주)신흥유테크 회장
- 李鍾敏(14회) 공항공관사 대표
- 吳鳳錫(15회) (주)동일건축 대표

- 宋圭政(16회) 윈스틸(주) 대표
- 陳炳壹(16회) (주)대아건설 부사장
- 徐廷勝(17회) 서경승산부인과의원장
- 金吉帝(18회) (주)MSC 대표
- 李成一(18회) 삼보산업 전무
- 南珍鉉(19회) (주)세양엔터프라이즈 회장
- 石武官(19회) 천연레포츠타운 대표
- 李龍鉉(19회) (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무소 대표
- 陳慶一(20회) (주)영신 대표
- 許南均(20회) 현향공산업(주) 대표
- 崔民錫(21회) 유원산업(주) 회장
- 崔載權(21회) 현승미디어 부사장
- 朴載祥(22회) 전일여객(주) 대표

- 劉載眞(22회) 미창석유공업(주) 회장
- 鄭相壽(22회) 제일농수산(주) 대표
- 金宗圭(23회) 김종규법률사무소 변호사
- 朴基旭(23회) 삼오정 대표 부산시의원
- 朴洪圭(24회) 박소아과의원장
- 崔中植(24회) 법률사무소 변호사
- 金鎮喆(25회) (주)디에스아이 대표
- 姜仁伯(26회) 동흥실업 대표
- 尹晶煥(27회) 서진섬유(주) 대표
- 崔康浩(28회) 진영수산(주) 피자사업부 대표
- 梁吉龍(29회) 등남아해운(주) 대표
- 尹星德(30회) (주)태광 부사장
- 崔巨勳(30회) 법무법인 천지 변호사
- 朴武澈(31회) 박무철치과의원장

- 朴命珍(33회) (주)고려종합토건 대표
- 柳世浩(34회) 남양석유(주) 대표
- 張仁華(35회) 동일철강(주) 대표
- 丁允省(35회) (주)뉴부산택시 대표

감사

- 方奉佑(10회) 이원회계법인 대표
- 朴哲乘(23회) 성도회계법인 대표
- 金泰佑(27회) 법무법인 국제 변호사

사무국

- 사무국장 韓炳祚(13회)
- 회보이사 金炳碩(16회)
- 총무부장 金炳秀(22회)

모교60년사 편찬

이렇게 추진을

동창회가 정직하게 투자해야

자료수집에 용마가족 동참 혼신의 노력을



김경희

제9회
재경동창회 고문
(주)용마공업 대표이사

알렉스 헤일리(Alex Palmer Haley 1921~1992)의 소설 「뿌리(Roots)」가 남겨준 충격과 교훈을 잊을 수 없다.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노예로 잡혀온 쿤타킨테를 비롯한 6대에 걸친 모계 내력의 역사기록이었다. 1997년 풀리처 특별상을 수상한 헤일리가 어릴 때부터 타고난 이야기꾼 할머니와 누나로부터 들어온 조상들의 이야기를 더듬은 사소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온 세계를 놀라게 했다. 역사의식에서 출발한 좋은 모델이다(Roots는 뿌리의 복수형으로 여기서는 '조상'을 뜻한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 본부동창회 박동영 회장 체제가 '모교60년사' 편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기대가 크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계획 없이 막연한 계획이라면 출발부터 빗나가게 마련이다. 불행히도 발간을 약속했던 역대 회장들이 구체적으로 정확한 투자계획을 밝힌 분이 없었음이 우리 동창회의 현주소다. 제발 이번만은 구두선(口頭禪)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역사란 현재의 얼굴이며 미래의 좌표이다. 모교의 역사를 통해 역사의 교훈을 깨닫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양식이다. 그러나 실제로 용마들이 모교 역사에 관하여 의외로 잘 모르고 있음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태스크포스팀 체계적 운용

'모교50년사' 편찬을 처음으로 제창한 분은 송두호 회장(3회)이다. 송회장은 1987년 9월30일자 회보 제200호 기념사에서 "모교50년사 발간을 위한 편찬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제하고 "모교와 동창회의 반세기에 걸친

역사가 굴절 없이 바르게 조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송회장 이후 역대 회장들이 50년사 또는 60년사 편찬을 각각 언급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지금까지 태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조차 구성해 보지도 못한 우리들의 무소신과 무성의를 몹시 부끄럽다. 역사를 정리해야 할 때가 훨씬 지났다.

모교사의 편찬은 모교와 동문들의 자기반성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며 동창회의 역사적 방향 설정과 과업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줄 것이다.



모교사에 대한 동문들의 역사인식과 자세는 여전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동문들은 자기 자신이 있는 모교의 시대적 사명을 동창회 임원이나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따라서 대부분의 동문들은 자기 모교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고 동창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들도 지금까지의 자세에서 벗어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의식을 새롭게 세워나가길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바람직한 '모교60년사'를 위해 우리 동문들이 유념해야 할 숙제를 제시한다.

무엇보다도 개교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영욕을 말 없이 증언해주는 사진과 기록들을 알뜰히 제공해주어야 한다. 숨기고 싶었던 기

록들까지도 남겨야 하고, 우리 전통에 어긋나는 부분까지도 알뜰히 수집해야 한다. 힘든 작업인 만큼 외로운 집념이 있어야 한다. 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이해한다. 그러나 자료가 있다는 정보를 얻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애살과 적극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막연한 협조를 기대하는 구태의연한 어리석은 태도는 차제에 버려야 한다. 특히 동창회가 정직하게 투자해야 한다. 적당히, 대충대충은 철저히 배격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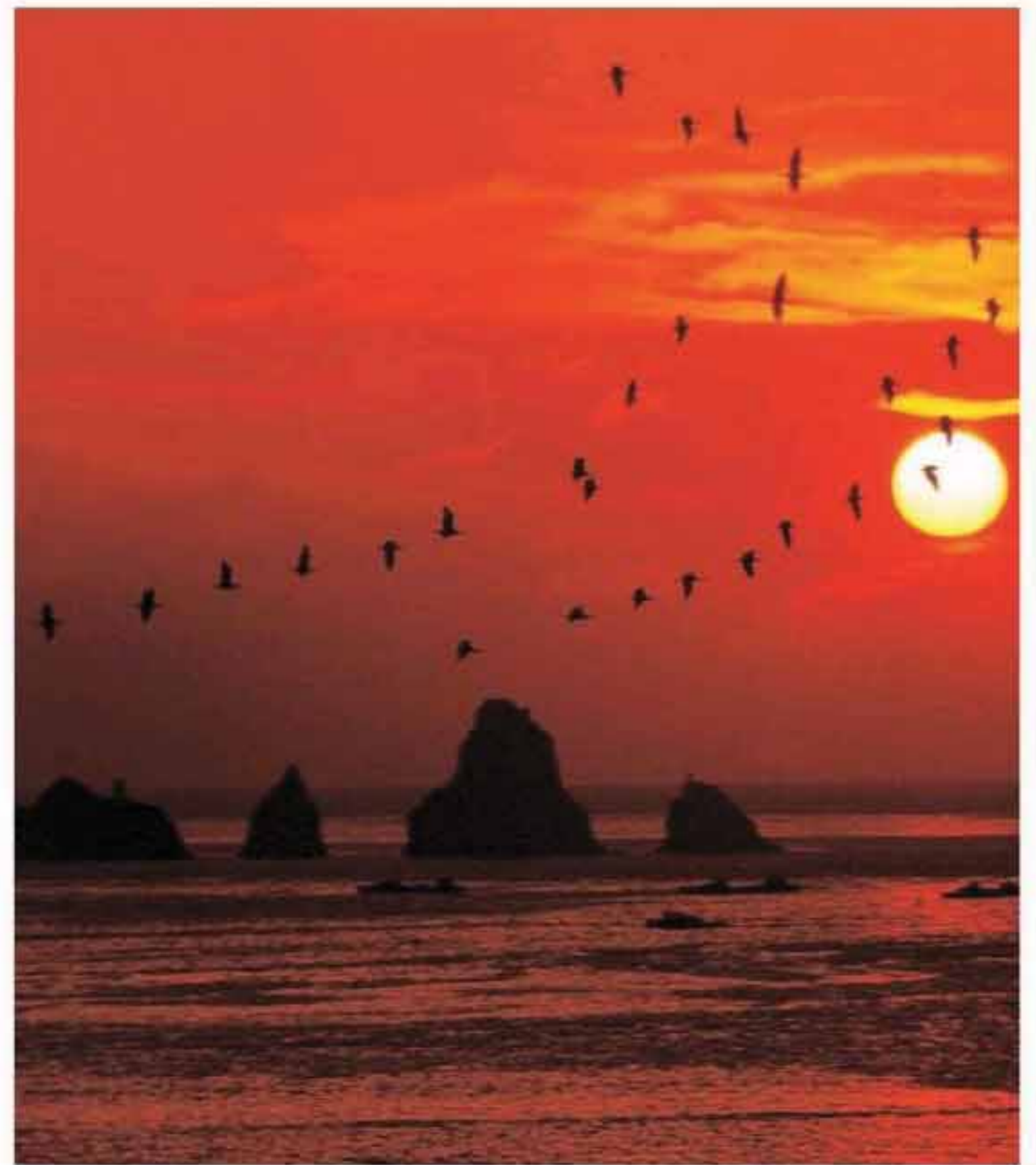
숨기고 싶은 기록도 발굴을

역사기록의 소명에 바치는 정성과 모교와 동창회의 증인으로서의 자부심을 위해서도 이번만은 철저히 준비하기를 바란다. 본부동창회와 재경동창회에 각각 유능한 동문을 책임자로 선정해 선·후배님들의 인터뷰와 녹취, 사진 확보 등 모교사를 위한 자료 수집과 기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은사님들의 귀중한 자료와 증언이 시급하다. 결코 늦출 수 없는 문제이다.

'모교60년사!'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이 사업에 용마가족 모두가 불을 지피야 한다. 편집위원들만의 활동에 그치지 않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 동창회가 적극 투자하기를 거듭 촉구한다.

그 동안 우리들의 역사의식 결여와 무책임에 대해 반성할 때이다. 그리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 도전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가지고 출발하자. 목표를 분명히 하면 단순해지고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

문은 두드린 자에게만 열린다. 포기하지 말자. 인생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했을 때 끝난다. 준비하고 끈질기게 노력하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것이다. 동문 모두가 참여한 '용마들의 뿌리' 모교60년사를 반드시 펴내는 역사를 창조하자.



달리기로 새해 스피트

용마가족들이 양띠해 새해 첫날을 '달리기'로 펼쳤다.

지난 1월1일 오후 6시 부산 해운대 동백섬 산책로, 제27회와 제31회 마라톤회 동문·가족들의 힘찬 서퍼트가 지축을 울렸다. 이는 개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이 같은 열정을 결집해 동창회 활성화에 직접시 키려는 데 있는 것.

제27회동기회 마라톤회 경우 이날 장기남·강봉호·이형복 동문 부부·조봉관 총무 부부(부인 김종순씨는 전 육상국가대표) 박상훈 동문 등 20여 명이

이칠·삼일마라톤회 용마가족들 해운대 동백섬 7바퀴 돌며 도약 다짐

레이스에 참가, 동백섬을 7바퀴나 돌았다.

제31회동기회 마라톤회는 손정수 회장 부부를 비롯해 최동식(동방인쇄 대표이사) 최해영·안기수 동문 등 15명이 참가, 역시 동백섬을 7바퀴나 돌며 젊음을 분출시켰다.

제31회 마라톤회는 지난해 11월 초 부산 사하구 하단동 가락타운 지역 동문·가족들이 동아리를 만들어 호시가 됐다.

제27회는 8월 초 마라톤회를 결성했다. 같은 해 9월 29일 오후 7시 부산아시아게임 개막식 팡파르가 울려 퍼진 같은 시각에는 두 번째 행사로 15명의 동문·가족이 동백섬을 7바퀴 돌았다.

이칠마라톤회와 삼일마라톤회는 본부동창회 소속 동기회·직능회·지역회(국내외 포함) 중 유일한 '이색동아리'로 화제이다.

회보 광고 협찬 안내

동문 여러분을 광고주로 모십니다.

크기 · 금액

하단 전체(8.2cm × 25cm) : 400,000원

하단 1/2(8.2cm × 12cm) : 200,000원

하단 1/4(8.2cm × 6cm) : 100,000원

내용

업체소개, 주요 취급품목, 대표자명(사진포함) 연락처, 기타 알리고 싶은 사항

문의사항

경남중고동창회 (051)245-7551~2

청십자병원 장례식장 개업 안내

청십자병원 장례식장은...

1. 우선 지상 1·2층에 위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2. 교통이 편리합니다(부산일보 맞은편).
3.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상조회사 또는 일반 장의사를 통하지 않고 저에게 바로 연락주시는 행사에 대해서는 장의비품 가격을 파격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도움주는 사람들의 모임은...

1. 상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염사들의 모임입니다(염사들은 일급소유자임).
2. 가정에서 임종 장례를 치를 때
3. 사망한 병원에서 장례를 치를 때
4. 사망한 병원에서 타병원 장례식장 또는 시립영락장례식장(화장장 소재)을 이용하려 할 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5. 연중무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체가송차(3대) 장의차(3대) 등을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전화 한 통이면 지체없이 달려가겠습니다.
6. 묘지 알선(공원묘원·임야), 매·화장신고, 택일, 이장, 개장 후 화장, 진단서 발부 등 대행합니다.

청십자병원 장례식장 · 도움주는 사람들의 모임 대표 김 광 박(14회)
HP. 011-552-4903 TEL. 051)255-4903, 051)469-1854~5



선후배들 정다운 합동산행

제10회-제13회 모교 뒷산에 올라 우정 나뉘

육십대 중반길의 제10회·제13회 선·후배들이 모교 뒷산(엄광산)에서 합동산행대회를 펼친 후 시원한 막걸리잔을 돌리며 회포를 풀었다.

지난해 제34회 기별대항야구대회 개막식날(10월13일), 연합팀 대전을 치른 제10회(짝수팀)는 김한조 동기회장을 비롯해 허 섭 동문(이날 짝수팀 투수) 등 13명, 제13회(홀수팀)는 구창덕 회장과 문현길 총무 등 15명이 선수와 응원단으로 활약했다.

대회본부가 제공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한 일행은 '합동산행'

에 찬동, 엄광산에 올랐고(사진) 꽃동네에서 오리불고기파티를 열어 학창시절을 회상하며 술잔을 비우고 또 비웠다.

이어 노래방으로 옮겨 가요경연을 벌였는데, 후배가 겨우 마이크

를 잡고 한곡 하고 나면 선배는 세 곡을 불러 '불공정' 시비도 연출했다.

이날 선후배들은 어느 쪽이든 산행을 할 땐 상대방을 불러 같이 가고 동기회별 산행대회 때도 초청해 합동행사를 치르기로 약속했다.



새해에도 다정한 이벤트 쏟아졌으면...

제18회동기회 동문·가족들은 봄이 어서 오기를 기다리며 설레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의 밤줍기대회와 바둑대회, 거제도에서 벌어진 폭풍경보 속 낚시대회와 달착지근했던 생선회맛(위), 구만산에서의 등산대회 겸 야유회(아래), 송년잔치 등이 너무 즐거워서이다.

봄부터 겨울까지 차례로 이어지는 이 같은 '축제'가 동문·가족 간의 친교와 유대와 화합을 촉진시켜 동기회의 조직활성화는 물론 동창사회에 응집력의 활력소로 승화되기 때문이다.

동기회 집행부는 새해에도 다정스런 용마가족이 되게끔 즐거운 이벤트를 많이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봉학 회장 유임시켜 제15회 대구지역회

제15회동기회 대구지역회는 지난 11월15일 오후 7시 대구 시내 싱싱회센터에서 정례회를 겸한 송년회를 열었다.

배봉학 회장(대양포장공업사 전무이사)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부부동반으로 열렸는데, 임원 개선을 통해 배 회장을 유임시켰다.

천자봉서 146차 산행대회 이철산우회, 눈비와 싸워

이철산우회 제146차 산행대

회가 지난해 12월8일 경남 진해시 근교 천자봉(502m)~시루봉(703m)~안민고개 코스에서 열렸다.

강봉호 회장 등 13명은 운지한 산행대장의 자상한 리더로 거센 빗줄기와 눈발을 잘 견뎠다. 산행 중 금잔에 부어 마신 더덕주는 별미였고(황귀양 동문 제공) 외국 생활을 하다 오랜만에 참석한 장세영 동문 때문에 분위기가 더욱 즐거웠다.

일행은 하산 후 다복횃집(신재옥 동문 운영)에서 송년회를 겸한 단합회를 열었다.

부산서 제13회 경부 바둑대회

우승 김시화·장위추...생선회 파티 등 별미산책

제13회동기회 제7차 경부친선바둑대회가 지난해 11월 23~24일 부산에서 열려 갑조에서 우승은 김시화(아마 3단·서울)·준우승은 임성화 동문(아마 2단·서울)이, 을조에서 우승은 장위추(아마 1단·부

산)·정영화 동문(2급·부산)이 각각 차지했다.

서울(9명)과 부산(21명)기우들은 대회 첫날인 23일 부산 서대신동 산정농원(이범경 동문 운영)에서 4개팀이 밤새도록 대국을 벌였고, 일부는

점질방 등에서 피로를 풀며 우정을 나눴다.

뒷날 24일 정오 일행은 부산 동래구 안락동 하나로통신빌딩 내 하나로갈비집(조원석 기우회장 운영)에서 거제도 감성돔회를 결집한 단합회를 열었다.

내년 대회는 재경기우회가 부산 '기사'들을 서울에 초청, 수담을 나눈다.

서울 사는 이철회 울산사나이 7명 지난 가을 극적상봉 '신선한 만남' 새해랑데부 손꼽아 기다려

서울에 사는 이철회(제27회재경동기회) 울산사나이 7명이 '새해 랑데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마음의 고향 구덕골을 떠난 후 처음으로 지난해 가을 극적상봉(?)을 한 자리에서 철석같이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서울바다에 참으로 넓어서 그런지 한 지붕 밑에 살면서도 서로가 울산출신인 줄 모르고 지낸 것을 무척 후회한 탓으로, 두 번째가 될 새해 만남에서는 더욱 진한 고향 이야기들을 준비해 나오기로 했다. 첫 만남이었던 지난해 가을(10월30일 저녁)로 시간여행을 떠난다.

강남의 어느 한정식집에서는 "야, 니가 울산×이냐?" "니가 울산에서 태

어난 게 맞냐?" "놀래졌네... 등 반가운 목소리들이 주변 손님들의 의아해하는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번지고 있었다.

거친 울산사투리를 아낌없이 토해낸 '촌담(?)' 들은 김수인(연락책)·안중택(서울고검 검사)·이영수(한양대 치과대 교수)·이승준(성원인터 대표·동기회 총무)·정상곤(국세청 감사담당관)·최용수(KIST 책임연구관·공학박사) 등이었다.

이날 이야기의 초점은 잠시 서로의 근황을 살펴 본 후 고향의 역사 문화 경제 등에 맞춰졌다. 입과 입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지역이 넓다보니 출신지가 면(面) 단위로 다 틀렸고, 출신 초등학교도 같질 않았다. 필지만 일찍

울산을 뜨는 바람에 부산 출신(동광초등학교)이었다.

중학교도 거의 틀렸다. 정상곤과 안중택만 울산제일중 출신으로, 학교 다닐 때 알았기 때문인지 안은 1년 선배인 정에게 선배대접을 껴두어하는 아름다운 정경을 보여 칭찬(?)을 받았다.

이들 중에는 서울대학을 가기 위해(부모님 권유로) 초등교 졸업 후 재수한 경우도 있고, 6년 과정을 두 번 다닌 경우도 있어 당시의 뜨거운 교육열을 느끼게 했다(물론 둘은 서울대 합격). 벽지 학교여서 그런지 다들 해당 중학교에서 경고 진학할 때 진기록들을 세웠다. 두광중을 나온 최용수는 졸업생으로서 20여 년 역사에 전무후무하게 경고에 합격한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이들 중 필자만 바로 경남중을 입학했고, 7명 중 4명이 재수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다. 어쨌든 이날 모임은 너무 값진 시간이었다.

〈지상중계·김수인〉

자꾸 자꾸 듣고 싶은 당신의 이야기

회보편집위원회에서는 동문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학창시절 추억이나 잠시 잊고 지낸 여러분의 꿈... 지금 일상의 이야기까지 어떤 소재도 가능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4~5장 이내 (명함판 사진 1장 동봉)

<보내실 곳>

부산시 중구 부평동4가 52-3 골든오피스텔 411호(600-074)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전화 : 051)245-7551~3 팩스 : 051)245-7550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클릭!! 클릭!!

www.kyungnam.or.kr

모교와 동창회의 소식이 가득한 동창회 홈페이지를 지금 클릭하세요.

※ 홈페이지에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동창회 사무국(051-245-755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희망 나누고 미래 모으자”...본부·동기회·지역회 송년한마당



본부동창회 주최 '2002 용마의 밤' 축제를 즐기는 동문들. 박동열 회장(오른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9회 최다참가상 “파이팅”

본부 용마의 밤 수상 결과
행운대상 이상목(8회) 수상

‘희망 나누고 미래를 모으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막을 올렸던 본부동창회 2002 용마의 밤 축제는 1500여 동문들의 감동과 열광 속에 휩싸였다. 이날 참가상 1위(최다상)는 46명

이 참석한 제9회동기회가 수상, 금일봉을 부상으로 받았다. 2위는 42명이 참석한 제8회동기회, 3위는 31명이 참석한 제11회동기회가 각각 차지했다. 흥겨운 노래와 장기자랑, 댄싱파티 틈틈이 많은 동문들이 행운상을 받았는데 대상은 이상목 동문(8회·박동열 본부 회장 협찬 김치

냉장고·90만원 상당)이, 특상은 서덕수 동문(21회·DVD플레이어)이 각각 차지했다. 또 금상은 김형우 동문(38회·DVD플레이어)이, 은상은 장정용 동문(17회·쿠쿠압력밥솥)이, 동상은 천장호 동문(31회·쿠쿠압력밥솥)이 각각 받았다.

부인들 노래대결 ‘신바람’
제15회, 알뜰 선물에 호뮈

제15회동기회는 지난 12월30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동광동 부산호텔에서 부부동반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잔치를 벌였다. 제1부 기념식은 정창환 회장 인사·정 총 보름장터 편집장 축하·업무보고 등을 진행(사회 조일랑 총무)됐다. 제2부 여흥(사회: 김관열 부회장)은 부인들의 노래대결 등으로 꾸며졌다. 참석자들은 새해달력과 기념품을 받았는데, 부인들에게는 화장품이 한 점 더 선물됐다.

160여 명 ‘끼’ 자랑 “뭇말려”

이철회, 부산·서울 부부동반 열창무대 꾸며

제27회동기회 2002송년잔치가 지난 12월14일 오후 7시30분 부산해운대 그랜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111명의 용마가족(부인 45명 자녀 7명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태우 회장이 주재한 이날 잔치는 김경진 총무의 사회로 기념식과 여흥 순으로 진행됐다. 제2부 여흥은 흥겨운 실내악단과 초청가수의 열창, 동문별·부인별 노래자랑, 부부가요제, 댄싱파티, 기차놀이 등으로 엮여져 마음의 찌꺼기를 모두 씻어냈다. 이날 행운대상은 이영옥 부부(김치냉

장고)가 수상했다. 한편 재경회는 지난해 12월27일 오후 7시30분 서울 삼성동 카르네스테이션에서 40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열었다. 김동조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이승준 총무의 사회로 진행, 졸업 후 처음 만나는 친구들 소개·회장 인사·경과 보고·축배·여흥 순으로 이어졌다. 특히 천안에서 온 김철수 동문의 “천안 오면 밤에다 술에다 그거(?)까지 책임지겠다”는 깜짝 코멘트를 퍼뜨려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합포만에 200여 우정 ‘넘실’

마산·창원 용마의 밤
노일봉 등 우정상 받아

마산·창원지역동창회는 지난 12월20일 경남 창원시내 인터내셔널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부부동반 용마의 밤 행사(위 사진)를 거행했다. 김재근 회장(19회·동마산병원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박동열 본부회장(8회)을 비롯, 동문·가족 200여 명이 참석했다(1부 사회: 하성일 사무국장·22회). 이날 행사에서 노일봉(13회)·최성웅(14회)·김수용 동문(24회)이 우정상을, 강인섭(18회)·김성주(27회)·정경현 동문(32회) 등이

본부동창회 특별상을 받았다. 박동열 본부회장을 비롯, 김재근 마창회장 고용석(22회)·김창수(22회)·김성주 동문(27회) 등이 행운상품을, 경인회(회장 윤경준·21회) 등 많은 동문들이 특찬금을 쾌척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3회·본부 고문)·이근식 행자부 장관(19회)·김정부 국회의원 등이 축전을, 재경동창회(회장 이상택·13회)를 비롯 거제(회장 서수홍·16회)·진주(회장 정순일)·양산(회장 이수천)·포항(회장 박상식)·대전동창회(회장 김덕수·이상 19회)에서 축하화환을 보내왔다.



제29회동기회 송년잔치에서 동문·가족들이 한데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본부 용마의 밤 협찬

- ▲ 주류 기증
 - ▷정용주(22회) : 소주 5박스(100병) 매화수 5박스(100병) 천국 5박스(40병) ▷윤덕승(28회) : 맥주 60박스(720병) ▷이상률(31회) : 콜라 10박스(300캔) 사이다 10박스(300캔).
- ▲ 상품 기증
 - ▷구자신(14회) : 전기압력밥솥 2점 (25만원 상당)
- ▲ 현금 협찬
 - ▷재경동창회 : 30만원 ▷울산동창회 : 20만원 ▷부산시 용마회 : 10만원 ▷조대제(7회) : 10만원 ▷문국(8회) : 100만원 ▷유홍수(11회) : 30만원 ▷김수일(13회) : 20만원 ▷김중의(13회) : 50만원 ▷김향운(13회) : 30만원 ▷정문화(13회) : 30만원 ▷정영일(13회) : 20만원 ▷조동구(13회) : 50만원 ▷제병민(13회) : 20만원 ▷허태열(18회) : 30만원 ▷김형오(20회) : 30만원 ▷서병수(25회) : 30만원 ▷서하수(30회) : 100만원 ▷신주복(해운대성심병원 영안실) : 50만원.
- ▲ 화환 협찬
 - ▷경남상고동창회 ▷동래고동창회 ▷동아고동창회 ▷부산고동창회 ▷부산상고동창회
- ▲ 동기회 협찬
 - ▷7회 : 10만원 ▷8회 : 10만원 ▷9회 : 10만원 ▷10회 : 10만원 ▷11회 : 10만원 ▷12회 : 10만원 ▷13회 : 10만원 ▷15회 : 10만원 ▷16회 : 10만원 ▷17회 : 10만원 ▷18회 : 10만원 ▷19회 : 원다 뉴시대 ▷20회 : 10만원 ▷22회 : 10만원 ▷23회 : 10만원 ▷25회 : 무릎보호대 7개 ▷27회 : 10만원 ▷29회 : 10만원 ▷31회 : 보은도시락 2개 ▷33회 : 10만원 ▷34회 : 면도기 ▷36회 : 10만원 ▷40회 : 야구장갑 4개 ▷41회 : 10만원.

부부동반 100명이나
제29회, 권두진 공로패
오경호 부인 노래자랑 1등

제29회동기회는 지난 12월4일 오후 7시 부산 서면 호텔롯데부산 2층 사파이어룸에서 부부동반 100명(부인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개최했다. 박기찬 회장이 주재한 이날 잔치는 이승준 총무의 사회로 진행, 기념식·노래자랑·그라운드·레이크이션 등으로 엮여졌다. 이날 박 회장은 6년 동안 총무직을 맡아 고생한 권두진 동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한편 노래자랑에서 1등은 오경호, 2등은 임광열 동문 부인들이 차지했다.

제8회재경동기회

도봉산에서 새해 첫 산행
1월 중 수락·관악산 누벼

철순을 눈앞에 둔 재경동기회(회장 김영철) 산꾼들은 지난 1월 11일 도봉산에 올라 새해 첫 산행을 즐겼다. 1월 중 18일은 수락산에, 25일은 관악산에 오를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월 19일에는 관악산에 올라 송년회를 열었다. 이날 부산의 조봉석 동문이 합류해 더욱 즐거웠다.

골프 제117회 남회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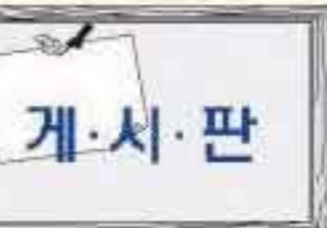
우승 김호석·정종욱 차지
골프모임 잔디회(회장 배주원)는 지난 12월5일 안성CC에서 19명이 모인 가운데 남회대회를 열었다. 이날 남자부는 우승 김호석(89타·이븐)·준우승 홍기성·니어리스트 노재복·행운상 정진수 동문이, 여자부는 우승 정종욱·준우승 장은아·니어리스트 이정자·행운상 전은희씨가 각각 차지했다.

우승 김진석·준우승 최대영
팔선회 신년 바둑대회

바둑모임 팔선회(회장 이우환)는 지난 1월4일 오후 1시30분 일품기원에서 신년대국을 벌였는데, 김진석 동문이 우승을, 최대영 동문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김진석 신현주 이우환 윤태영 최대영 이창근 동문(이상 도학순)이 참석했다.

제10회재경동기회

참석자 모두 행운상 당첨
정기총회 겸 송년회 성황
제10회재경동기회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6시 서포타임에서 2002년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열었다. 이슬락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부부동반 57명(부인 16명)이 참석, 황정조 동문의 재치 넘치는 사회로 흥겨운 여흥을 즐기면서 서로 격려하고 덕담을 나눴다. 특히 동문·가족들은 행운상 추첨에서 모두 당첨되는 행운을 잡았는데, 이는 집행부가 새해에는 복을 고루고루 누리자는



배려에 따른 것.

수리산에서 남회 등산
사니조아, 매일 두 번 산 탈 뚫

등산모임인 사니조아는 지난 12월 15일 잔설이 아름다운 수리산에서 남회등산을 했다. 신봉수 동문 등 10명은 하산 후 지하철산면역 1층 마창수산회관에서 싱싱한 생선회와 소주잔을 나누며 송년회를 겸했다. 이날 회원들은 회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의견들이 쏟아졌는데, 많은 동문들이 매월 셋째 일요일에 등산을 하되 첫째 토요일에도 한 번 더 하자고 해 집행부에 결정을 맡겼다.

이정배 회장 등 집행부 유임
골프 우승 장기상

골프모임 경록회는 지난 12월5일 자유CC에서 남회대회를 열었다. 라운딩 후 정기총회에서 이정배 회장 등 집행부를 재선임했다. 이날 우승 장기상·메달리스트 양희복·준우승 진 강·3위 김재근·통기스트 이승락·니어리스트 안우만·행운상 정갑환 동문 각각 수상.

제15회동기회

화진·이화·가람회 “부리보!”
동기회 각 친목회는 지난해 12월 중 송년 행사를 각각 열고 우정을 다졌다. 화진회(회장 김판열)는 10일 오후 6시30분 죽마고우(김승일 동문 운영)에서 김명배 동문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 개최. 이화회(회장 이동근)는 10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남포동 일식전문점 대본에서 고태연 동문 부부를 비롯, 부부동반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 개최. 가람회(회장 이정부)는 10일 오후 7시 죽마고우에서 임영길 동문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 겸 송년회 개최.

제27회동기회

재경동기회 산우회는 지난해 12월22일 청계산에서 남회를 겸한 제57차 산행을 했다. 김동조 동기회장 부부 등 14명은 정상인 매봉에 올랐다가 그너머에서 막걸리로 목을 축였고 하산후에는 이등막걸리로 배를 채웠다.

남회 골프대회 우승 박진우
스폰서 맡아 한해 마무리

이철 골프회는 지난해 12월22일 동부산CC에서 남회대회를 열었다. 윤정환 회장 등 13명(1명 게스트)이 펼친 이날 라운딩에서 우승은 박진우·메달리스트는 전창민·준우승은 강영건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일행은 라운딩을 끝내고 돼지꿈꾼날이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이날 우승한 박진우 동문의 ‘한턱 쏘겠다’ 제의로 서면의 문화관광호텔(윤정환 회장 운영) 살롱에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축제의 햇불 드높이 밝히자” 기별대학 야구대회 활성화에 붙여

용마춘추

영화 '축제'가 영화평론가와 영화 매니아들 사이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창준의 동명소설을 영상화한 것으로, 연로한 시골 노모의 장례식을 계기로 서로간에 쌓인 갈등을 풀고 화해에 이르는 가족 구성원의 이야기를 '축제'라는 형식을 빌어 승화시킨 수작이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축제'라는 단어가 갈수록 생소해질 뿐이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개인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법은 다양해져도 우리를 지어 즐기는 우리 고유의 풍습은 세월이 흐를수록 시들어지는 세대가 아닌가 싶다.

작은 정성들 모이고 쌓여 활력소로 그 힘으로 '신선한 영광' 창출

그런 의미에서 전통을 자랑하는 기별야구대회를 '축제'라는 이름으로 되새겨본다. 지천명을 지나고 보니, 단일팀 구성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 제24회동기회가 청년부 우승팀인 제44회팀을 제치고 통합우승을 했다. 우리로서는 '축제'가 아닐 수 없었다. 우리들 축제의 원동력을 짚어 본다. 등장 인물 자체가 그 아름다운 청소년 시절을 함께 하고 언제나 만나면 반갑고 즐거운 중·고교 동기라는 사실이, 또한 가을이 오면 평소 만나기 어려운 서울 친구까지 만날 수 있다는 즐거움이 가미되어 더욱 낭만 속으로 묻힌다. 이 축제의 성공은 해운회사에서 평생 월급쟁이 노릇을 하면서도 만사 제쳐놓고 기별야구대회를 기획·연출하는 장민재 회장의 헌신 결과이다. 그리고 평소 부산직장야구연맹 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야구를 사랑하고 몸소 야구를 즐기는 것을 생

활화하고 있는 태창업 총무, 오십이 넘는 나이에 그 정도로 강속구를 뿌릴 수 있을 정도로 몸과 마음을 관리하고 있는 마도로스 출신의 두 에이스 정기춘·변정규, 재학시절 선수생활을 했지만 아직도 프로야구 선수 못지 않은 멋진 어깨를 가지고 있는 오기봉, 팀을 '막강'으로 이끌고 있는 황성동 감독 등이 있어 즐거움이 춤을 춘다. 어디 그것뿐이랴 평소 어려운 동기들의 후견인 노릇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뿐 아니라 봄 가을마다 사재를 털어 후원해주는 구본준·변용준 동문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또 부산에서 수시로 동기들에게 술과 밥을 사주는 서정대·원동희 동문이 있어 더욱 우리를 든든하게 해준다. 여기에서 기별야구대회에 우승이라는 꿈과 희망을 심어준 김경남 동기

보약 받은 원로들 “살맛나네...”

울산 용마의 밤... 참석자 전원에게 행운상

울산지역동창회는 지난 12월30일 울산 시내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02년 정기총회 겸 용마의 밤을 개최하고 신입회장에 김성규 동문(10회)을 선출했다. 김형수 회장(14회)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동문·가족 160여 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본부동창회에서는 박동열 회장을 비롯, 한병조 사무국장(13회)과 김병수 총무부장(22회)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김 회장은 2부 여흥을 통해 제3~13회 선배들에게 보약·종합비타민·강정제를 선물했다. 특히 사회자(이석우·24회·손수일·25회)의 재치로 참석자 전원에게 행운상을 받았다. 노래자랑에서 박점용 동문(25회) 부인이 금상을, 박홍조 동문(22회) 부인이 은상을, 신승수 동문(31회)이 동상을 차지했다. 한편 특별초청된 소프라노 이주희양(울산대 음대 3년)이 멘델스존 '노래의 날개 위에' 등 3곡을 열창,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협찬동문 ▷박동열 본부회장 : 화환·금일봉 ▷울산원로동문회 : 50만원 ▷울산대 동문교수회 : 100만원 ▷조준탁(13회) : 50만원 ▷윤정현(14회) : 100만원 상당 반창고세트 4박스 ▷한수길(14회) : 100만원 상당 롯데과자 400세트 ▷제18회 : 30만원 ▷박홍조(22회) : 60만원 상당 타올 200장

▷박덕봉(22회) : 60만원 상당 타올 200장 ▷제23회 : 100만원 ▷조장래(23회) : 100만원 ▷박맹우(25회) : 100만원 ▷박동건(25회) : 10만원 ▷정치영(28회) : 50만원 ▷제30회 : 20만원 ▷제31회 : 50만원 ▷박춘열(31회) : 100만원 상당 보약환 5인분 ▷최일진(31회) : 60만원 상당 보약처방권 2장 ▷제32회 : 50만원 ▷우인호(33회) : 60만원 상당 선물세트 10점 ▷울산의약사동문회 : 150만원 상당 종합비타민·강정제 등 10상자.



울산지역 동문·가족들이 연출하고 있는 용마의 밤 행사

절망 녹인 '눈물의 장학금'

제24회, 투병 중인 동문 자녀에 100만원 지급

“절망을 녹여주는 장학금입니다. 은혜 꼭 갚겠습니다.” 투병 중인 동문을 격려하고 그의 자녀에게 장학금이 전달되는 순간 가족들도, 찾아간 동문들도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제24회동기회는 지난 12월7일

경남 김해시 삼정동 자택에서 수년간 투병 중인 김연수 동문을 찾아가 위문하고 그의 자녀에게 장학금 100만원을 전달, 격려했다. 동기회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 27일 장학위원회를 개최, 2002년도 장학금 수혜자로 김 동문의 자녀

를 선정했다. 김 동문은 “너무 고마워 말씀이 막힙니다. 자식이 동기회 장학금의 귀중한 뜻을 받들어 열심히 공부해 보답할 줄로 압니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신입회장에 태창업 선출 제24회 정기총회 개최



제24회동기회는 지난 12월13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대청동 서라벌호텔 가야홀에서 부부동반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2년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열고 신입회장에 태창업 수석부회장(태흥사 대표·사진)을 선출했다. 김경남 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을 개설했다. 2부 송년잔치는 재치 넘치는 김정모 동문(한국교양문화협회회장)이 사회를 맡아 2시간 동안 흥을 돋웠다. 집행부는 많은 동문의 협찬에 힘입어 참석자 전원에게 상품권(총 400만원 상당)을 선물했다.



제24회 동문·가족들의 흥겨운 송년잔치

회장이 있어 축제를 햇불로 타오르게 한다. 경기가 끝나고 한 세대를 뛰어넘는 선후배가 같이 모여 식사를 하고 소줏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또 하나의 인생의 큰 즐거움이며, 자식벌인 모교 야구선수들과 한때나마 야구장에서 같이 한다는 것이 삶의 기쁨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동창회 활성화의 활력소가 아니겠는가. 뭐니뭐니해도 이 축제의 주인공인 우리 동문들이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조금씩은 예소해지고 외로워져 갈 때, 그래도 기다려지는 가을이 있고 즐길 수 있는 계절과 이벤트가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살 맛이 나는 것이다. 기별야구대회 활성화에 붙을 지피어나가자.

김도현
제24회·야구단 주무

우승 김상희·강창수 차지 제12회 회장배 바둑대회

제12회동기회는 지난 12월 21일 부산 중구 부평동 용두기원(정진태 동문 운영)에서 2002년 동기회장배 쟁탈 바둑대회를 열었다. 김철기 기우회장이 주재한 이날 대회는 토너먼트식 패자부활전으로 진행, A조에서 우승 김상희·준우승 김영선·감투상 유병용·애석상 정진태 동문, B조에서 우승 강창수·준우승 이수영·감투상 박미원·애석상 하일민 동문이 각각 수상했다.

제 3 회
宋斗灝=본부 고문 (자택) 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1162 동아솔레시아파트 127동 1401호. 031-716-3101

제 4 회
鄭相千=본부 고문 (자택)서울 강남구 논현1동 24-11 알 파임하우스II 102동 101호. 02-548-5242

제 7 회
鄭泰成=FKI미디어 사장. 지난 11월19일 별세

제 8 회
朴同烈=총동창회장. 해운대성심병원장. 지난 11월22일 해운대

어디서 무엇을

그랜드호텔 동원홀에서 일본 고오베 아사히병원과 자매결연 체결 10주년 기념으로 고오베 아사히병원 의사·간호사 등을 초청, 학술세미나 개최
張榮錫=(자택이사)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855 주공뉴타운아파트 109동 1903호. 031-268-8559
崔載赫=(자택이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탑마을 쌍용아파트 506동 802호. 019-321-

7627. E-mail : hakchon34@hanmail.net
金柄琮=(자택이사)충남 연기군 서면 청나리 326. 041-862-5170
金元鎬=지난 10월13일 지병으로 별세
洪光秀=지난 10월25일 서울 청담동 새천년웨딩홀에서 차녀 정원양 결혼
李昌圭=(자택이사)경기도 용인시 구성읍 마북리 629 삼거리마을 삼성래미안1차아파트 103동 105호. 031-287-9181. 011-9047-1181
김태규=지난 12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장녀 자경양 결혼
鄭鎮秀=1월4일 서울 63빌딩에서 장남 하영군 결혼
李鍾洙=1월19일 서울 마포홀리데이인서울에서 장녀 현주양 결혼

신임회장 이원철 선임 제28회, 홈커밍 준비위원장 겸임

제28회동기회 2002년 정기총회 겸 송년회가 지난 12월 17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일동 하모니웨딩홀 연회실에서 열렸다. 이만수 회장이 주재한 총회는 신임회장에 이원철 동문(법무법인 국제 변호사)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 신임회장은 홈커밍데이 행사(졸업30주년 기념) 준비위원장도 맡는다. 송년잔치로 열린 2부 여흥은 김만수 회장이 사회를 맡아 한마당을 연출했다.

제 10 회

趙吉洙=(자택)부산 해운대구 좌동 1439 벽산2차아파트 210동 1302호, 051-701-4640
金容穆=微石, (자택이사)김포시 북변동 풍년마을 308동 1904호
조상진=(자택이사)경기 용인시 구성읍 상하리 621 수원동마을 쌍용아파트 314동 1703호 031-274-0948, 019-365-0945
元容致=(자택이사)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중앙하이츠아파트 101동 406호, 02-2296-9927, 019-573-1013
趙守榮=(자택)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건영아파트 505동 504호, 031-913-4103, 016-331-4223
李啓昌=1월11일 서울 남부터미널 국제전자센터 14층 웨딩홀에서 차남 결혼
朴在薪=(자택이사)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현대1차아파트 104동 506호, 031-263-7525
李慶道=지난 12월7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딸 결혼

제 12 회

金浩洙=1월 14일 부산 보훈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
李相台=지난 11월21일 중국에서 별세
鄭鑄守=지난 12월 26일 영도병원에서 지병으로 별세
鄭相烈=지난 6월 지병으로 별세
金富生=지난 12월2일 모친 별세
金顯燦=1월5일 롯데호텔에서 장남 결혼
徐茂敏=지난 11월30일 새마당에 식당에서 6녀 결혼
徐泰相=지난 12월14일 하모니웨딩홀에서 장녀 결혼
王漢均=본부부회장. 지난 12월7일 조선비치호텔에서 차녀 결혼
李盛大=지난 12월15일 모친 별세
趙殷秀=지난 12월28일 서울 국방회관에서 장남 결혼
崔炅均=지난 12월15일 포항 귀빈예식장에서 장녀 결혼
河一民=(자택이사)부산 북구 화명동 206 도시화명그린아파트 202동 807호, 051-342-3356
姜洙憲=본부부회장. 1월23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장녀 도인양 결혼. 대동벽지(주) 대표이사, 051-808-1331

제 13 회

曹光秀=(자택이사)울산 남구 옥동 182 옥동 현대아파트 102동

504호
申敏徹=지난 12월8일 범일동 국제호텔에서 딸 유진양 결혼
朴景五=(자택이사)부산 영도구 동삼1동 267-16 서정빌라 302호
金壯雄=1월5일 서면 롯데호텔 3층에서 삼녀 정은양 결혼
徐鍾鶴=(자택이사)부산 수영구 수영동 50-13 (4/2)
金漢奎=(자택이사)부산 남구 용호1동 LG메트로시티 141동 2203호, 051-612-3577

제 15 회

金祥泰=(자택이사)부산 사하구 당리동 321-33 수정그린빌라 A동 301호
李致永=영남대병원 해부병리과 세외검사실장. 지난 12월 8일 MBC 라디오 프로 '건강한아침 황선숙입니다' 출연
李東根=지난 12월1일 (주)화성상조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
金永煥=지난 12월2일 모친 노환으로 별세
金正吉=지난 12월24일 서울 연세대 동문회관에서 장남 태훈군 결혼
安忠雄=1월5일 해운대 그랜드호텔 6층 에메랄드홀에서 장남 종현군 결혼
姜武相=1월12일 해운대 그랜드호텔 6층 에메랄드홀에서 장남 천군 결혼
曹源郎=(자택이사)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수산아파트 103동 209호, 016-715-3394, 02-363-1488
沈載一=(자택이사)부산 금정구 서2동 산33-3 삼한아파트 103동 106호
김호일=(자택이사)충남 천안시 성성동 우성아파트 106동 1405호
愼玉揆=대일전기 주식회사.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암리 207-1, 055-323-2971, 011-325-5941

제 16 회

鄭泰拾=지난 12월14일 장남 연수군 결혼
玄勝大=정훈일본어학원 교수부장. '일본어회화' 40권을 동기생에게 제공
金鳳九=지난 12월8일 장녀 선경양 결혼
襄正一=수산경제신문회장. 동기회사무실 방문 회식 제공
崔春植=미국 LA에서 동기생들에게 연하장 발송
金明武=지난 12월15일 장녀 미현양 결혼
尹明吉=일육골프회 회장 피선

051-552-4245~9, 011-9786-6239
尹亨根=지난 11월24일 부친 별세, 011-9604-0827, 대림산업 061-688-6150
安東旭=양정주유소 대표, 051-862-7060, 011-564-7050, (자택)부산 부산진구 당감3동 동원타워 아파트 101동 708호
全永祥=만덕 복음병원 장례식장, 051-365-1024, 011-9218-1024, (자택)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35-9 (3/3), 051-247-0448
鄭東沅=부산병무청 정보관리과,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46, 051-801-4329, 011-880-8788
許宗行=미래공인중개사, 051-341-6997, 016-9308-9267
朴英煥=1월3일 모친 별세, (주)

제 29 회

朴炳晚=굿모닝신한증권 부산지점 이사, 051-243-0707, (직장)051-248-8519, 011-578-6347
朴英奇=정근안과, 051-668-8000, 016-895-5975, (자택)부산 사하구 괴정3동 동원아파트 104동 803호
朴政煥=부산대학교 학생부처장,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수, 문학박사, 051-510-1122, 011-877-1251
徐錫哲=무진한의원 원장, 051-207-1558, (자택)부산 사하구 감천1동 635 한명주택 B동 306호, 051-207-0956
任龍鎬=하나은행 수안동지점장,

051-552-4245~9, 011-9786-6239
천마, 051-851-2700, 011-831-2710



鄭信克=지난 12월21일 장녀 정인양 결혼
宋圭政=(주)윈스틸 달력 및 수첩 각 20권 동기생에게 제공
朴龍一=(주)은팍소프트랩 대표, 어슬렁산 20권 동기생에게 제공
李哲壽=(자택)경남 양산시 중부동 현대아파트 115동 204호
姜炅必=(자택)부산 온천2동 럭키아파트 5동 1405호
李武榮=(자택)부산 동래구 칠산동 195-8
金定成=(자택)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372 현대아파트 9동 606호
曹昌國=(주)코솔라엔지니어링 회장. 지난 12월26일 모친 별세
玉武雄=1월11일 장남 창섭군 결혼
李相大=1월12일 장남 준희군 결혼
崔英旭=1월19일 차남 일준군 결혼
韓利憲=1월 13일 부산동기생 36명 초청 저녁 회식 제공

제 17 회

成允煥=(자택이사)부산시 서구 토성동1가 5 수근에이스타운 1502호, 051-244-8350

제 20 회

辛源基=르노삼성자동차 부사장으로 승진, 051-979-7026
李盛根=천경해운 상무이사로 승진, 051-600-2211
李實根=대한항공 상무이사로 승진, 051-970-5450
沈斗壽=대청이코노샵 대표, (자택이사)부산 영도구 영선동 반도보라아파트 101동 601호, 011-853-0221
許圭判=삼성산업 회장, 1월 4일 모친 별세, 011-807-9933

제 21 회

徐泰基=1월 6일 별세, 마산
閔丙允=1월 11일 장녀 결혼, 경남대 교수
韓光洙=지난 12월 16일 부친 별세, 호성화학 대표이사, 011-578-8891
李鍾法=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011-870-6677
金昌珉=경남산업(주) 대표이사, 016-9808-8928

제 30 회

辛榮柱=사우나탕(천지연) 개업, 화명동 신시가지(화명스포렉스 3, 4 층), 016-554-2149
崔碩烈=동아대학교 의과대학, 1월 3일 모친 별세, 017-559-9862
盧致勳=초원셀러드 개업, 해운대 스피지 5층 음식코너, 017-870-1940
張學珉=지난 12월 22일 모친 별세, 011-9804-5212
梁哲模=상장회사 동성화학의 대표이사로 취임
徐夏洙=(개업)지난 11월30일 해운대 스피지 오픈, 051-740-0800
李海正=SK Global America 이혜

趙駕來=부산 동래구 복천동 우성베스트피아 107동 1102호, 삼보크레인 이사, 011-312-4441
全琪煥=해성병원(반송) 원장, 지난 12월 15일 PSB TV 'Love virus/왕진을 갑니다' 출연, 011-868-2869
卞昌燮=진미식당 이전개업, 사하구청 옆, 051-206-0062, 017-595-9669
姜民宇=(자택)부산 남구 문현3동 383-1 문현삼성힐타워 C동 1002호, 051-632-7301
吳翌熙=(자택)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 272-1 산호아파트 5동 407호, 051-865-4877

제 23 회

吳萬錫=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이사, 02-403-8877, 011-287-7800, E-mail : dh7800@yahoo.co.kr

제 24 회

金正謨=한국교양문화협회 회장, (자택이사)부산 연제구 연산9동 2220 주공아파트 117동 1302호
朴道源=(자택이사)부산 금정구 부곡4동 804-2 가원아트빌 302호
宋晚秀=지난 11월29일 지병으로 별세
禹賢相=현대중공업 플랜트사업부 부장, (자택이사)울산 동구 서부동 279-15 삼전관 1202호
周点權=삼송초밥 대표, (자택이사)부산 중구 창선동1가 13-1
崔明振=경기도 구리시 사노동 산15-1
崔世宇=지난 11월21일 지병으로 별세

제 25 회

全圭煥=지난 12월8일 별세
嚴沂永=1월3일 모친 별세

제 27 회

徐明植=(주)삼아 이엔지, 757-7020, 011-9001-5307
朴文秀=수원대 고분자 공학과 교수, (자택이사)서울 서초구 방배3동 1029 공작 빌라트 901호, 02-3486-5745, E-mail : amparks@suwon.ac.kr
전응휘=(주)미디어랜드 연구소장, 02-2142-3680, E-mail : ehchon@medialand.co.kr, (자택이사)경기 용인시 죽전동 대진1차 아파트 106동704호, 031-272-8665, 017-346-8661
李秀榮=일주물류(주) 대표이사, 051-441-0900, 011-231-7764, E-

mail : sj-iljo@hanmail.net
李燦弘=LG화학 부사장으로 승진, 061-680-1500, 019-660-1404
車東珉=(주)LG 카드 부사장으로 승진, 경영지원부 담당, 02-2005-8007, 019-226-6955
李基雨=부산, 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李仁揆=(자택)부산 남구 용호동 176-30 LG메트로시티 134동 1206호, 051-622-1333

제 28 회

金明哲=교보증권 부산지점 투자상담사, 051-809-6841, E-mail : daniel4288@hanmail.net
鄭瑾幸=(자택이사)부산 남구 문현3동 삼성힐타워 A동 1508호, 051-467-4362
襄明哲=조선일보 편집국 영남취재본부장, 051-469-5900
安 豊=1월 10일 부친 별세, 051-464-6626
金命永=김명영치과의원 원장, 28산우회 신임회장, 051-333-1784
林在德=(주)고려제강 유산공장 공장장, 055-389-1400
李仁洙=중앙공무원 교육원 입소 예정

제 29 회

金根德=사상구청 허가민원실, 051-310-4623, 011-884-5127, (자택)부산 사상구 주례1동 299-7, 051-316-5124
김응수=오오멤멤 하단점 대표, 051-292-6075, 017-583-6126
金淳讚=지난 12월13일 모친 별세, HSD엔진(주) 생산운영팀장, 055-260-6980, 011-599-8073
金泰完=MOSTECH,Int'l,Inc 051-504-8400, 016-9669-6666, (자택)부산 해운대구 재송2동 한보미도아파트 407호
金浩成=부산외국어대학 기획과, 051-643-5111, 011-856-2992, (자택)부산 남구 용호1동 LG메트로시티 111동 2001호, 051-612-5686
金正浩=부산가톨릭신학대학 교수 겸 신부, 051-519-0430, 011-9525-5479
盧東旭=백양중학교 교사, 051-336-9655, 018-593-7855, (자택)부산 금정구 장전1동 271-14 (9/2) 051-513-7854
朴熙律=파스퇴르 남구대리점 대표, 부산 남구 대연1동 917-25, 051-619-4502, 019-513-3902, (자택)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107동 2301호, 051-928-9890

제 31 회

高榮佑=대우자동차 대구 본사 수입차 담당, 053-741-4303, 016-562-9070
鄭宗憲=(자카르타)(Mobile)62-818-894-672 (자택)62-21-723-0624 (사무실) PT, HANIN NUSA, 62-21-8900-009, E-mail : jnjung@cbn.net.id, jnjung@hotmail.com
바로 잡습니다
회보 제336호(2002.12.21) 8면 재경14산악회 홈페이지 주소 'www.14sanak.co.kr' 이 'www.14sanak.co.kr' 의 잘못이기에 바로 잡습니다.

새해 첫 "야호!" 달음산서... 드넓은 동해바다 품안에

소한 한파가 기습한 지난 1월5일, 삼공산악회의 새해 첫 산행대회가 부산 기장군 일광면과 장안읍에 걸쳐 있는 달음산에서 벌어졌다. 부산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달음산에 오르면 멀리 푸른 동해가 펼쳐져 가슴이 탁 트이는 기분이 되지만, 들머리 옥정사 앞에서 주봉인 취봉까지는 계속 경사길이라 인내심이 꽤 필요하다.

이날 오전 9시30분 지하철 노포동역 옆 주차장. 문장호 회장과 산행대장 정용하를 비롯, 김우삼·유창열·장상현·왕순모·박희관·박웅석·서민석·배경조 동문 등 10명은 대기 중인 승합차편으로 옥정사 앞까지 달렸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춥다는 날씨 탓으로 다들 방한복 방한모

장갑 등으로 중무장을 했다. 걸을 때는 땀이 무지 흐르고 쉬거나 하여 걸음을 멈추면 바람에 추위가 온몸을 떨리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이 겨울 산행의 묘미 중 하나가 아닐까. 입김은 코 끝에 땀인지 콧물인지를 자꾸 매달리게 한다.

오늘 산행이 비교적 짧기 때문이라며 약간 우회하여 달미산(달음산의 꼬리라 하여 붙여진 이름)을 오른 후 달음산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병풍바위 앞에 서니 4~5m 높이 암군이 등산로를 막고 섰다. 자일이 걸쳐져 있기는 하였으나 오르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특히 솟다리 M의 애쓰는 모습은 눈물겹기까지 하다. 서로를 도우며 무사히 병풍바위를 오른 후 잠시 걸으니 달음산 정상(587m)이다.

다른 일행이 시산제를 지내는 모습도 보였다. 우리도 다음 산행에서는 간단하게나마 시산제를 지내야 하지 않을까 의논해 볼 일이다.

다시 천마산(415m)을 향해 가던 중 점심식사. 평소엔 빠지지 않던 곡차가 없다. 곡차담당을 정해야 하나? 천마산, 함박산(415m)을 거쳐 정관재로 오니 어느덧 오늘의 산행은 끝났다. 소산마을에 도착해 버스를 기

다리니 3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 버스정류소 앞 곡차 파는 가게에서 동동주로 시간을 때우며 부부생활에서의 묘미(?) 등 잡담으로 피로를 잊는다.

부산도착 후 동래시장 근처에서 목욕, 그리고 낙지볶음으로 저녁식사(서민석 동문이 연말 송년회 행운상 대상수상 기념으로 쏘았다). 2차에서 맥주파티.

문장호 회장 장남이 1월 7일 입대를 한다는데 아버지로서 은근히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아름답다. 우리도 벌써 그런 나이가 되었구나...

배경조
제30회산악회 부산행대장

욕지도에서 밀물 타고 온 아름다운 우정

남해바다 섬에 들어가 여생을 기쁘면서 손수 낚은 생선을 부산·서울 등지 친구들과 선후배들에게 택배로 보내는 동문이 있어 화제다.

제10회동기회 집행부에 따르면 화제의 주인공은 정승석 동문. 정 동문은 부산에서 일군 사업체(삼성화학)를 정리, 지난 98년 말 경남 통영항에서 쾌속정으로 1시간쯤 달리면 닿는 욕지도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바닷가 언덕 위에 집 한 채를 지어 부인과 단둘이 살고 있는 정 동문은 바다와 섬으로 수없이 낚시를 다니면서 눈여겨 보아왔던 이 곳을 여생을 위한 삶의 새로운 동지로 삼았던 것.

제10회동기회 기초 다투는 정승석 동문
부산 떠나 섬 생활 친구·선후배 등에게 손수 낚은 생선 택배로 선물

정 동문은 이곳에 정착한 이후 평소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과 정든 선후배들에게 그간의 고마움에 보답하는 뜻으로 자연산 우럭과 돔 등을 골고루 썩은 데다 정을 듬뿍 담아 보냈다.

재경동기회 경우 월례회 때 이렇게 보내온 생선으로 '회잔치'를 벌였다. 모두들 욕지도 밀물에 실려온 우정에 감동을 아끼지 않았다.

확장시절 대대장을 맡을 정도로 통솔력과 추진력이 강했던 정 동문은 초대회장에 선임되자 직장전환번호·주소 등이 불분명한 동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를 확인해 주소록을 만드는 등 초창기 열악한 기반 조성에 열정을 쏟음으로써 오늘날의 탄실한 동기회로 발전하게 했다.



"때를 보아 스스로 가겠노라"

白壽까지 '끈끈한 삶의 애착' 엿보기

웃으며 삼시다

예부터 인생은 '힘한 산길'이니 '고달픈 바다(苦海)니' '머나먼 여정'이니 하며 인내의 슬기를 배우며 살게 했다.

일찍이 사내대장부는 스물 살 전에 학문을 닦아(志學-지학), 서른 살 전에 사회에서 지위를 얻어 출세하기(立身-입신)를 염원했다.

그리고 마흔 살이 되면 '불혹(不惑)'이요, 오십 살이 되면 '지천명(知天命)'이며, 육십 살이 되면 '이순(耳順)'이라고 불러 세상의 이치를 겨우 알게 된다고 했다. 세상은 디지털사회가 되어 살기

좋아졌고, '100세 장수'가 흔하게 회자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은 고령화사회에서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노병들의 활약이 대단하다. 어느 누가 백수(白壽-99세)에 이르기까지 '저승사자'에게 일러주라고 한 말을 옮겨 적는다. 새해 첫날 한번 환하게 웃어보자.

△환갑(還甲·60세) :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지금 안 계신다'고 하여라. ※60세는 회갑(回甲)·환갑(還甲)·주갑(周甲) 등으로도 불림.

△희수(稀壽·70세) :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이르다'고 여쭙어라. ※70세는 고희(古稀)라고도 함.

△희수(喜壽·77세) :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지금은 노락(老樂)을 즐긴다'고 하여라.

△산수(算壽·80세) :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이래도 아직은 쓸모가 있다'고 말하여라.

△미수(米壽·88세) :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쌀밥을 줌더 먹고 가겠노라'고 하여라. ※미수의 '米' 자는 '八+八'이라는 모양이

되기 때문.

△졸수(卒壽·90세) :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그렇게 서둘지 않아도 된다'고 일러라. ※'卒'자를 초서로 쓰면 '卅'자가 되는데, '九十'이라는 모양이 되기 때문

△백수(白壽·99세) : 저승에서 데리러 오거든 '때를 봐 스스로 가겠노라'고 하여라.

※백수는 99세 생일. '百'자에서 '一'을 덜어내면 '白'자가 되기 때문.

새해부터는 '생각은 깊게, 마음은 너그럽게 가지고, 남을 배려하고 겸손하며, 화를 내지 않으며, 말을 조심하고 가려 쓴다'면 장수의 길이 열리리라.

제30회 진주지역회 7명 모여 정다운 신년잔치

제30회동기회 진주지역회는 지난 1월8일 오후 7시 진주한정식에서 신년회를 열었다.

이곳 동문들은 김진동 동문이 창원으로 전근되는 바람에 10명이 됐는데, 배종민 총무가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7명만 참석했다. 이들은 배종민(경상대 교수)·이상수(현대자동차 소장)·김병환(사천공단 EEW KOREA-독일 회사)·장봉규(경상대 교수)·최준영(경상대 의대 교수)·허재관(GBO실무연구소)·이영석 동문(경상대 교수) 등이었다. 불참자는 조현구(경상대 교수)·장호영(진주국제대 교수)·최규정 동문(사업) 등 3명이었다.

제16회동기회 임원·이사 명단

회 장
이채언

고 문

차상영 변용현 송규정
조길우 김 조 양성민
옥윤석 조승남 강동관
김정호 신태규 정성기
옥무웅 이무근 장상진
한이현 권복술 박민소
홍정길 윤영식

본부부회장
송규정 진병일

본부이사

김정호 옥윤석 윤영식
장상진 최정일

부 회 장

김재승 김정균 박종덕
정영일 하홍근

감 사 황규정

이 사

강원경 길정도 김길정
김덕찬 김상호 김인국
김정직 김현호 문성환
박기태 박민홍 박영수
박용일 박종봉 신평양
이겸일 이길홍 이우재
주낙곤 최안홍

사무국장 강종국

직 능 회

일육골프회
회장 윤명길 총무 강경필
일육산악회
회장 김찬문 총무 최정일
일육의약회
회장 신평양 총무 권복술
일육기우회
회장 이채언 총무 이명수